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13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산업진흥과	담 당 자	• 융합기술팀장 • 담당자	김도식 김병수	☎440-4261 ☎440-426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파브(PAV) 산업 요람으로 부상

- 독보적 기술력 앞세워 180억 대 국책 과제에 선정 -
- PAV 기체·부품 성능 검증 ... PAV 연계한 관광형 모빌리티 도시 조성-

전문가들이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개인용 항공교통수단인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가 미래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파브(PAV) 산업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파브(PAV) 조기 상용화와 미래 모빌리티 시범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선정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 인하공전, 인천PAV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파브(PAV) 비행체와 핵심부품 시험·성능

평가를 위한 복합중심센터를 구축하고, 파브(PAV)의 조기 상용화를 통한 미래 관광·레저형 모빌리티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비 100억 원, 시비 70억 원, 관련 기관 16억 원(현물출자) 등 총 사업비 186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의 정부공모 사업 선정은 인천지역의 파브(PAV) 산업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크게 앞서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지역 드론 전문기업인 (주)숨비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서울 ADEX 2021’ 전시회에 국내 최초의 파브(PAV) 시제기를 선보이면서 인천이 파브(PAV)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파브(PAV)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산업부에 이번 사업을 제안했고 산업부는 파브(PAV)가 미래 교통의 핵심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 관련 기술향상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역 파브(PAV) 산업계가 추진하는 파브(PAV)는 일반항공기의 고정된 날개(고정익)가 없는 대신 헬리콥터와 같이 회전 날개를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활주로 없이 좁은 공간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공중에 머무를 수 있어 미래 개인 항공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인천시와 관련 산업계는 파브(PAV)를 인천의 미래 신 성

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레저와 연계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파브(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으로 향후 10년 동안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천300억 원에 이르고 고용유발효과도 1천9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기존 600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 가운데 150개가 파브(PAV)산업으로 전환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파브(PAV)는 2030년 전후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이 뛰어난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체와 부품의 성능 인증 및 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파브(PAV)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진> PAV 비행 이미지



< PAV 시제기 전시(서울 ADEX 2021) >



< PAV 비행 이미지 >